

모니카의 사랑에 대한 《고백록》의 반향(反響)

(Confessions's Reflection on Monica's Love)

이규철 목사



- 서울신학대학교 및 동대학원(M. Div., Th. M.)
- 피츠버그대학교 수학, 계명대학교대학원(Ph. D.)
- 전)육군3사관학교 충성대학교 담임목사
- 현) 안동성결교회 담임목사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들어가는 말

‘모니카’의 사랑은 ‘어거스틴’의 삶의 결정적 토대였다. 이는 어거스틴이 모니카에 대해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은 모두 어머니의 덕택입니다”라고 한 소개말에서 명료히 드러난다.¹⁾ 그리고 ‘나의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 (*Mater mea, mater nostra*)라며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고 추모하는 말에서 특화된다.²⁾ 더불어 어거스틴이 모니카와 사별

(死別)한 지 10년 후 《고백록》³⁾을 저술할 때, 어머니의 죽음에 애절한 애

- 1) 모니카에 대한 어거스틴의 이 소개는 어거스틴이 카시키아쿰(Cassiciacum)의 베레쿰두스의 별장에서 인퇴(引退)의 시간을 가지던 386년 11월 13일 그곳에 함께한 이들 앞에서 한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로 회심한 어거스틴은 수사학 교수직을 사퇴하고 386년 9월부터 387년 3월 초 사이 베레쿰두스가 빌려 준 카시키아쿰(Cassiciacum)의 한 별장으로 인퇴(引退)하여 세례받기를 준비했다. 당시 그곳에 모인 자들은 모니카, 어거스틴의 동생 ‘나비기우스’(Navigius), ‘트리게티우스’(Trygetius), ‘리켄티우스’(Licentius), ‘라르티디아누스’(Lartidianus), ‘루스티쿠스’(Rusticus), 그리고 어거스틴의 아들인 ‘아데오다투스’(Adeodatus) 등이다. 이들은 함께 헬라 고대적 사유와 히브리적 사유가 조우하는 열띤 토론을 하였다. 이때 이루어진 토의는 속기사가 정리하고 어거스틴의 교정과정을 거쳐 《아카데미학파 논박(Contra Academicos)》, 《복된 삶(De Beata Vita)》, 《질서론(De Ordine)》 그리고 《독백(Soliloquia)》 등의 책으로 편집되었다. Augustine, *De Beata Vita*, tr. Ruth A. Brown, *A Translation with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Cleveland: John T. Zubal, Inc. 1984), 69. De Beata Vita는 이하 Vita로 표기한다.
- 2) 《고백록》에 의하면, 어거스틴에게 카시키아쿰의 별장을 빌려 준 베레쿰두스는 밀라노의 수사학 문법 학자였다. 베레쿰두스가 어거스틴에게 자기 별장을 줄 때 그는 아직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으나 그의 아내는 충실한 기독교인이었다. 397년 베레쿰두스는 병중에서 세례 받고 세상을 떠났다. Augustine, *Confessions*, 선한용 역,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IX, 3. 5. *Confessions*는 이하 *Conf*로 표기한다.
- 3) 어거스틴은 《고백록(Confessions)》을 397-401년에 저술했다. 브라운(Peter Brown)에 따르면, 어거스틴이 13권 273장으로 구성된 하나님을 향한 그의 회심과 신앙 세계를 《고백록》으로 명명한 것은 그에게서 ‘고백’(confession)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기소(起訴)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찬양을 두루 뜻하기 때문이다. Peter Brown, *Augustine of Hippo*, 차중순 역(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2), p. 252.; ‘스톡’(Brian Stock)에 의하면, 어거스틴은 그 5년 동안에 걸쳐 저마다의 다른 상황 속에서 썼던 조각 글들을 ‘인간 영혼에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하에 구성했다. 《고백록》은 작가로서의 어거스틴이 때때로 기술해 놓은 글들을 편찬한 것이 아니라 저자가 이 한 권의 책을 ‘쓰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태어났다는 특징을 지닌다. Brian Stock, *Augustine The Reader: Mediation, Self Knowledge, and the Ethics of Interpretation*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pp. 301-302; ‘켄터’(N. F. Cantor)에 따르면, 《고백록》은 어거스틴의 자서전 이면서 신학적인 성격을 지닌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의 각 장을 저술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한다. 《고백록》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해에 대한 인간 어거스틴의 질문이며 동시에 바로 그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에 대한 그의 철저한 긍정의 기록이다. N. F. Cantor, “聖 아우구스티누스와 그의 思想”, 《西洋中世思想史論》, 지동식 등 역(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1), p. 126.; ‘에반스’(James H. Evans)에 의하면, 《고백록》은 회심 여정인 1-10권과 창세기 1장의 주석인 11-13권이 연합된 구성 형태이다. 《고백록》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들어 있지만 어거스틴의 회심이 일어나게 된 과정과 그 회심의 주창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고백이라는 주제에 의해 내적 통일성과 통전성을 가진다. 이런 점에서 《고백록》은 시간성에 묶여 있는 인간의 창조주와의 만남에 대한 시도를 인격적 경험의 패러다임에 기초한 형이상학적 구조를 가진다. James H. Evans, “Prisoner of the Flesh: A Literary Analysis of Augustine's Confessions”, *The A. M. E. Zion Quarterly Review* 97(4)(1987), p. 19.

도를 표현함으로 그 절정에 이른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어머니에게 드린 나의 존경을 나를 위한 어머니의 정성 어린 봉사에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크신 어머니의 위로가 없어졌으므로 내 영혼은 상처를 받았고, 어머니와 하나가 되어 살았던 나의 생명은 찢어지는 듯하였습니다.⁴⁾

모니카가 어거스틴의 삶에 결정적이었다는 사실은 《고백록》에 명시된 이름의 양(量)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⁵⁾ 곧 어거

4) *Conf.*, IX, 12, 30.

5) '콘돈'(Matthew G. Condon)의 조사에 따르면, 어거스틴은 고백록 전반부에서 그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다가 5권에 이르러서야 당시 마니교 지도자였던 '파우스투스'(Faustus of Milevis)의 이름을 밝히면서 등장인물들을 거명하기 시작한다. 더욱이 어거스틴은 자신의 기독교 신앙 회심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암브로스'(Ambros, 339-397)와 친구 '알리피우스'(Alypius) 등은 거명하지만 그가 10년 이상 동거한 여인과 모니카의 임종 시에 함께했던 그의 형제와 누이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 이를테면 어거스틴의 회심에 영향을 끼친 '심플리시아누스'(Simplicianus)는 7회, '암브로시우스'(Ambrosius)는 12회, '네브리두스'(Nebridius)는 14회, 그리고 '알리피우스'(Alypius)는 22회 정도 거명한다. 그런데 그의 회심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끼친 모니카의 이름이 고백록의 9권에서 단지 1회만 언급되고 있다. 이는 그가 유일하게 어머니 모니카의 말을 인용해 사용하는 우호적 차별성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다른 사람들과 달리 모니카 거명 횟수가 1회인 것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는 모호하다.

왜 어거스틴은 고백록의 5권에 이르기까지 인물은 등장시키되 이름은 묻어 두었는가? 왜 5권부터 시작된 등장인물의 이름 거명이 선별적인가? 과거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함께 기억할 수 없는 지적 문제가 있었는가? '매튜 콘돈'에 의하면, 이름의 거명과 관련해 고백록에 드러난 어거스틴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고백록》 1권에서 4권까지 어거스틴은 하나님보다 사람과의 교제에 몰두해 있었으나 5권에서 마니교 감독 파우스투스를 만난 이후 6권에서 9권까지 사람이 아닌 절대적인 존재 곧 하나님과의 교제를 향해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곧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5권을 기점으로 하여 그의 인간관계를 '세상 추구의 1차적 단계'와 '하나님 추구의 2차적 단계'로 구분한다. 그리고 자신의 회심을 가능케 했던 2차적 단계의 등장인물들의 이름만을 밝힌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 이름을 선별 거명한 기준은 그의 회심이었다. 곧 어거스틴은 그의 회심 역정을 기록한 고백록에 자신의 회심 사건과 무관한 자의 이름은 의도적으로 거명하지 않은 반면 단지 자신의 회심과 관련된 사람을 밝힘으로써 그의 회심의 의미와 가치를 돋보이게 하고자 했다.

Matthew G. Condon, "The Unnamed and the Defaced: The Limits of Rhetoric in Augustine's Confess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Vol. 69, No. 1(March 2001), p. 44.

스틴은 《고백록》을 기록함에서 그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Patricius)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낀 반면 모니카에 대해 풍성한 언급을 한다.⁶⁾ 모니카와 어거스틴 양자의 관계성을 면밀히 살핀 '오메라'(John J. O'meara)의 평가에 따르면, 《고백록》에 언급된 모니카의 삶은 어거스틴의 삶의 한 부분이었고 어거스틴은 결코 모니카의 아들이 되기를 멈추지 않았다.⁷⁾

본 연구는 이 점을 주목하여 어거스틴의 생애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 모니카의 사랑의 정수(精髓)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어거스틴의 생애 속에 녹아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반향(反響)인 《고백록》에 적시(摘示)된 모니카의 사랑의 자취를 조사한다. 그리고 모니카의 사랑에 영향을 받아 어거스틴이 이룬 신학적 성숙도를 점검하여 어거스틴에 대한 모니카

그런데 어거스틴이 그의 회심을 기준으로 하여 고백록에 등장인물을 거명한 것은 당초 고백록의 집필 의도를 무색케 한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라일 어셔'(Lyell Asher)의 분석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총 역설을 위한 어거스틴의 회심 강조는 하나님보다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는 오류를 초래했다. 곧 고백록을 통해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겸손보다 죄를 회개하는 겸손에서 발화되는 은밀한 교만함을 엿보게 하는 위험을 초래하는 '부정적 과시' 문제를 야기했다. Lyell Asher, "The Dangerous Fruit of Augustine's Confession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Vol. 66, No. 2(Summer 1998), p. 243.

6) 파트리키우스에 대한 《고백록》의 묘사는 간간이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들려 주고 있을 뿐 상당히 차가운 것이다. 특히 어거스틴은 그의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토록 길게 묘사하면서도(*Conf.*, IV, 5-7), 아버지의 죽음은 잠시 지나는 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Conf.*, III, 4, 7). 어거스틴은 "내 아버지는 본래성격이 대단히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다"고 아버지를 회상하였다(*Conf.*, IX, 9, 19). 《고백록》에 의하면, 어거스틴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물욕과 야심에 찬 전형적인 아프리카 누미디안(Numidian)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컸고 자식에 대한 자랑 또한 대단했다(*Conf.*, II, 3, 5). 그러나 공교롭게도 어거스틴은 그 같은 아버지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는 어거스틴이 그의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내면적 긴장감을 계속 가짐에서 기인된다고 추정된다. 이를테면 목욕탕에서의 일(*Conf.*, II, 3, 6),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Conf.*, IX, 9, 19), 그리고 어릴 때 매를 맞았던 기억(*Conf.*, I, 10, 16) 등이 아버지에게 대한 어거스틴의 거북스러운 내면세계의 외적 표출이다. 이러한 점에서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그의 아버지를 독자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경우가 없다. 단지 어머니 모니카와 대비하거나 그의 회상 중의 사건들과 연관될 때만 아버지에게 대해 기술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어머니 사후(死後) 10년 뒤 저술한 《고백록》에서 그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와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장엄한 기도를 통하여 효도를 못다 한 아들의 아쉬운 심정을 토로한다(*Conf.*, IX, 13, 37).

7) John J. O'meara, *The Young Augustine: The Growth of St. Augustine's Mind Up to His Conversion* (New York: Longmans, Green and Co., 1954), p. 36.

의 사랑의 모상(貌相)을 그려본다.

1. 고백록에 언급된 모니카

모니카⁸⁾에 대한 《고백록》의 언급은 두 방면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모니카의 생애와 인격에 관한 간략한 스케치이다. 다른 하나는 어거스틴의 회심을 위해 헌신하는 모니카의 모습이다.

먼저, 어거스틴은 모니카의 생애와 인격에 대해 《고백록》 제 9권에서 집중적으로 언급한다. ‘에릭 지올코브스키’(Eric J. Ziolkowski)에 의하면, 모니카에 대한 이야기가 《고백록》 제 9권에 집중된 것은 어거스틴이 모니카에 관해 미리 작성한 소품(小品)을 그 본문 속으로 삽입시켰기 때문이다.⁹⁾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은 모니카의 생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어머니는 한 남편의 아내였고, 부모님께 순종하였으며, 자기 집안을 건전하게 다스렸고, 착한 일을 하여 칭찬을 받았으며, 자식들이 당신의 길에서 떨어져 가는 것을 볼 때는 그들의 출산 시에 산고를 겪는 듯한 괴로움을

8) ‘프렌드’(W. H. C. Frend)의 조사에 따르면, ‘모니카’라는 이름은 ‘누미디아’(Numidia)의 지역신인 여신(女神) ‘몬’(Mon)에서 연유했다. 누미디아인들은 전통적으로 농업의 신(神) 새턴(Saturn)을 숭배했다. 누미디아인들에게 새턴 신은 ‘최고의 아버지’, ‘신성한 존재’, ‘영원한 존재’ 등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새턴 신을 숭배함에 있어서 순수성과 희생제가 요구되었는데, 이러한 점은 아프리카의 종교적 특성이 정감적이며 결벽증에 사로잡힌 가운데 황홀한 도취를 추구하는 경향을 갖게 했다. 그리고 노래와 격렬한 춤을 통해 엑스터시적 경험을 얻으려고 했으며, 꿈과 환영을 얻으려는 풍습이 성행했다. 이 꿈은 피안세계의 반사이거나 신의 간접적인 계시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누미디아의 종교적 환경에서 있었던 모니카 또한 꿈을 중시했음이 《고백록》의 곳곳에서 감지된다(Conf., VI, 13, 23). W. H. C. Frend, *The Donatist Church: A Movement of Protest in Roman North Africa*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52), p. 172-176.

9) Eric J. Ziolkowski, “St. Augustine: Aeneas’ Antitype, Monica’s Boy”, *Literature & Theology* 9(1) (1995), p. 2.

몸에 느끼면서 그들을 길러냈습니다.¹⁰⁾

‘피터 브라운’(Peter Brown)에 따르면, 어거스틴에게 비쳐진 모니카의 삶과 사랑은 훗날 어거스틴이 그의 내면세계를 성찰하고 자성하는 인격자로 성장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점에서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통해 그의 어머니에 대해 그토록 많은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좋은 기억의 회상들로 《고백록》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¹¹⁾

《고백록》에 의하면, 모니카는 북아프리카의 타가스테(Thagaste)에서 한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당신이 어머니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부모님들도 자신들에게서 어떤 아이가 태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채찍, 즉 당신 독생자의 훈계가 어머니로 하여금 당신을 경외하도록 당신 교회의 충실한 지체인 기독교자의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셨습니다.”¹²⁾

모니카는 그녀 집의 나이 많은 한 하녀에게서 암전하고 조심성 있게 좋은 교육을 받았다.

어머니는 자기가 받은 좋은 교육을 말할 때 자기 모친의 열성보다는 자기 집에서 일했던 나이 많은 하녀의 덕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녀는 보통 큰 여아가 작은 어린애를 업고 다니듯 어머니의 부친을 자신이 아직 어릴 때 업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랫동안의 봉사과 좋은 품성 때문

10) Conf., IX, 9, 22.

11) Peter Brown, *op. cit.*, p. 34-35.

12) Conf., 9, 8, 17.

에 그 기독교 가정의 어른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집안에서 일하는 계집종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하녀는 거룩하고 엄격하게 그들의 행동을 다스렸고 그들을 가르쳐 지도할 때는 신중하고 지혜롭게 하였습니다.¹³⁾

모니카는 한때 몰래 술을 좋아하는 버릇에 빠진 적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 나쁜 습관을 고쳤다.

모니카의 처녀 시절, 흔히 있는 관습에 따라서 모친은 부모님의 술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럴 때 술을 그릇에 따라 주전자에 붓기 전에 자기 입술 끝을 약간 대서 맛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는 그 조그만 잔을 거의 가득 채워 마시기를 좋아하는 습관으로 빠져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언젠가 술광에 술을 가지러 들어갈 때 다른 하녀가 자주 어머니와 같이 가곤 했는데 그 때 단둘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녀는 어머니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술주정뱅이' 라고 말하면서 가장 혹독한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 욕설에 찔림을 받은 어머니는 자신의 그릇된 행위를 반성하고 바로 그것을 정죄하여 버렸습니다. 진실로 아첨하는 친구들이 우리를 그르치듯이 원수들의 욕설은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고쳐 주는 모양입니다.¹⁴⁾

모니카는 결혼 적령기가 되었을 때 이교도인 파트리키우스를 만나 주님을 섬기듯 그를 섬겼다.¹⁵⁾ 브라운에 의하면, 모니카와 파트리키우스는 결혼하여 4자녀를 두었다. 어거스틴은 모니카가 23세 때 태어났으며, 남동생 '나비기우스' (Navigius)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두 명의 여동생을

13) *Ibid.*

14) *Conf.*, 9. 8. 18.

15) *Conf.*, 9. 9. 19.

낳았다.¹⁶⁾ 한마디로 어거스틴의 눈에 비친 모니카의 인격은 남편의 눈에 사랑받고 존경과 흠모를 받는 아름다운 이였다.¹⁷⁾

다음으로 어거스틴은 《고백록》을 통해 모니카의 인격에 관한 추모의 소개와 함께 아들의 회심을 위해 헌신하는 모니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 무엇보다도 모니카는 아이들을 기독교 교육으로 양육하는 데 헌신했다. 특히 모니카는 소년 어거스틴을 '세례입교교육' (catechumenate)에 입문시켰으나 세례를 받는 것은 연기시켰다. 이는 세례 받은 후에 죄를 짓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함이었다.

내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 영생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 영생이란 교만한 우리들에게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의 겸손을 통해서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때 십자가의 표시로 인침을 받았고 당신을 깊이 믿고 있는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당신의 소금으로 간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 주님, 내가 어렸을 때에 갑자기 배가 몹시 아파서 죽게 되었던 일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그때도 당신은 나를 지키시는 자였으니 내 어머니와 우리 모두의 어머니 되신 당신의 교회의 경건에 감화되어 내가 얼마나 열렬한 믿음으로 내 주 하나님인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려고 열망했는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주 예수여, 그리하여 내가 당신께 참회함으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의 성례로 깨끗이 씻기워지고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에 들도록 어머니는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병은 즉시 나았습니다. 이리하여 나의 죄 씻음은 늦어졌으니 그 이유는 내가 만일 더 오래 살면 더 더럽혀질 것이 불가피한 것이었고 또한 세례 받은 후에 지은 죄는 더 크고

16) Peter Brown, *op. cit.*, p. 34

17) *Conf.*, 9. 9. 19. 고백록에 의하면, 모니카는 헌신된 섬김으로 남편과 살았으며 남편의 혼인의 부정(결혼생활의 실수)도 잘 참아냈다. 또한 부드러운 인내로 심술궂은 하녀들의 서로 수군대는 소리로 불화하게 된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잘 참아냈다(*Conf.*, 9. 9. 20). 특히 모니카는 타가스테에 살 때 잡담을 지양했고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피하되 오직 화해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Conf.*, 9. 9. 21).

위험하기 때문이었습니다.¹⁸⁾

모니카와 파트리키우스는 어거스틴이 16살 되었을 때 아들의 영혼을 위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학습을 강권했다.

나는 이 소년 시기에 공부하기를 싫어했고 또한 강제로 공부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강제로 공부를 하게 되었으니 내가 공부를 잘하지 않았어도 그것은 내게 유익한 것이 되었습니다. 나를 강제로 공부시킨 그들의 관심은 다만 부끄러운 영광과 재물에 대한 끝없는 욕심을 만족시켜 보자는 목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머리카락을 세시는 당신은 공부를 억지로 시킨 그들의 잘못을 나를 위해 선용하시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셨고, 공부하기 싫어한 나의 잘못을 당신은 내 별의 이유로 사용하셨습니다.¹⁹⁾

《고백록》에 따르면, 파트리키우스는 그의 아들이 성적(性的)으로 성숙함을 알아채고 기뻐했다.²⁰⁾ 그때 모니카는 아들에게 간음에 대해 훈계를 하면서²¹⁾ 어거스틴의 조기 결혼에 분명한 반대를 하였다. 이는 조기 결혼이 어거스틴의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모니카가 어거스틴의 학습을 이토록 중히 여긴 것은 그의 공부가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방해가 되지 않고 도리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²²⁾ 이후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카르타고’ (Carthage)에서 수사학을 공부하던 중(371-374년) 남편 파트리키우스가 별세하자(372년), 아버지를

18) *Conf.*, 1. 11. 17.

19) *Conf.*, 1. 12. 19.

20) *Conf.*, 2. 3. 6.

21) *Conf.*, 2. 2. 7.

22) *Conf.*, 2. 3. 8.

대신하여 카르타고에 유학 중인 어거스틴의 학비를 후원했다.²³⁾

뿐만 아니라 모니카는 어거스틴의 신앙 행로를 다잡기 위해 노력했다.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마니교인이 되어 다른 신자들을 위험에 빠뜨렸을 때²⁴⁾ 그를 집에서 내쫓았다.²⁵⁾ 이는 모니카가 신앙의 여인임을 보여 준다.

더불어 어거스틴의 눈에 비친 모니카는 용기와 경건과 기도의 여인이었다. 383년, 어거스틴이 성공적인 젊은 수사학 교수가 되었을 때, 그는 카르타고의 직업을 포기하고 좀 더 좋은 학생들을 찾겠다는 이유하에 도망치듯 로마로 갔다. 당시 어거스틴은 카르타고의 항구에 위치한 ‘성 키프리안 기념 교회’에 어머니를 버려 두고 로마로 가는 배에 올랐다.²⁶⁾ 그러나 불굴의 모니카는 “바다와 육지를 넘어” 어거스틴을 추적하여 밀라노에서 아들을 만났다.

이때 사랑이 지극한 어머니는 모든 위험 중에도 당신을 의지하며 바다와 육지를 넘어 나를 따라와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진리를 찾지 못하고 절망한 나머지 큰 위험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나는 기독교 신자가 되지는 않았으나 이제는 마니교도가 아니라고 말했을 때 어머니는 반가운 새로운 소식을 들은 듯 감짝 놀라거나 기뻐

23) *Conf.*, 3. 4. 7.

24) ‘로버트 러셀’(Robert Russel)에 의하면,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빠져 방황한 것은 그가 키케로의 철학서를 읽은 373년부터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만나는 386년 사이였다. 마니교는 어거스틴을 매료시키면서 그의 영혼을 혼미케 만들었다. 따라서 어거스틴의 가슴속에 불타는 철학 추구의 열정 속에서 진행된 마니교에의 모색은 《고백록》에 그리 열렬한 어조로 소개되지 않는다. 오히려 어거스틴은 그가 이단종파에 빠졌다는 점을 가장 깊이 후회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입교할 당시의 그 열정은 해가 감에 따라 식어갔다. 어거스틴은 자신이 마니교에 들어가게 된 것을 ‘악마의 덫’에 걸렸다고 고백했다. Robert Russell, “The Role of Neoplatonism in St. Augustine’s *De Civitate Dei*”, H. J. Blumenthal and R. A. Markus, eds., *Neoplatonism and Early Christian Thought*(London: Variorum Pub. Ltd., 1981), p. 160.

25) 비록 모니카가 어거스틴의 극적인 회심에 관한 꿈을 꾸고 한 주교의 말씀에 위로를 받은 이후 같은 식탁과 같은 지붕에 그와 같이 살기를 동의했지만, 그녀는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빠지기 시작한 초기에는 그렇게 하기를 싫어했다. *Conf.*, 3. 11. 19.

26) *Conf.*, 5. 8. 15.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 의해 내가 살아날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마음속으로(나인 성의 과부처럼) 나를 관 속에 넣어 당신 앞에 놓고, 당신이 저 과부의 아들에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눅 7:14)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나)이 일어나 말하게 될 때 당신은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²⁷⁾

385년 늦은 봄, 밀라노에서 어거스틴을 발견한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모니카의 신앙(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적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자 밀라노의 주교인 ‘암브로스’(Ambrose)에게 아들의 회심에 힘이 되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했다.²⁸⁾ 또한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사랑하면서 아들까지 하나 낳은 어거스틴의 정부(情婦)를 떠나게 하도록 종용하였다.²⁹⁾

모니카는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스의 가르침에 복종하여 아프리카에서 하던 종교적 습관들을 버렸다.³⁰⁾ 더욱이 모니카는 암브로스를 도와 아리안(the Arians)³¹⁾을 대항하는 교회의 변호에도 참가했다. 《고백록》은

27) *Conf.*, 6. 1. 1.

28) *Conf.*, 6. 2. 2.

29) *Conf.*, 6. 15. 25.

30) 모니카는 아프리카에서 하던 습관을 따라 죽과 떡과 술을 순교자들을 기념하여 세운 사당에 가서 바쳤던 일이 있었는데, 언젠가 그 사당을 지키는 수위에게 제지를 당한 적이 있었다. 아타나시우스가 그 같은 행위를 금하는 금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때 모니카는 즉시 자신의 습관을 교정하여 겸손하게 순종하였다. *Conf.*, 6. 2. 2.

31) 아리우스는 성령을 하나의 위격으로 간주하였으나 성자의 본질이 아버지와 전혀 같지 않은 것과 같이 성령의 본질도 아버지와 전혀 다르다고 하였다. 아리우스의 주장을 그대로 이어받은 ‘아에티우스’(Aetius)와 ‘유노미우스’(Eunomius) 등도 성령은 성자가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고상한 자 즉 조명과 성화의 근원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아리우스주의(Arianism)에 대항했던 교회의 주 인물은 아타나시우스(Athanasius)이다. 아타나시우스는 성령의 ‘본질공존체성’(consubstantiality)을 주장했다. 아타나시우스에 의하면, 성령은 피조된 본체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하며 하나님의 신격을 소유함으로써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시며 아버지에게서 나온다. 고로 성령은 불변하고 편재이며 유일하게 한 분이시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참여한다. 그리고 성령은 스스로 교류하신다. Earle E. Cairns, *CHRISTIANITY THROUGH THE CENTURIES: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Michigan: Zondervan Co., 1981), p. 133-135.

이렇게 전한다.

소년 황제였던 ‘발렌티니아누스’(Valentinianus)의 어머니, ‘유스티나’(Justina)가 아리안파 기독교인들의 꾀임에 빠져 당신의 종 암브로스를 박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건한 교인들은 교회에 모여 철야를 하며 당신의 종이요 자기들의 감독인 암브로스와 함께 죽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당신의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교회를 사수하기 위해 근심하며 철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곳에서 밤낮 기도하고 계셨습니다.³²⁾

이런 연유로 인해 모니카는 암브로스에게 상당한 평가를 받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

어머니는 내 구원을 위해 암브로스를 극진히 존경하였고 그는 어머니의 신실한 신앙생활을 정말로 좋게 여겼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좋은 일을 하였고 신앙생활에 열심이 있었으며 교회에 늘 출석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나를 볼 때마다 자주 어머니를 칭찬하며 그러한 어머니를 모시고 있음을 축하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³³⁾

이후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386년 8월 후반부에 밀라노의 정원에서 회심을 경험하였을 때 그와 함께 있었다.³⁴⁾ 그리고 세례 예비자로서 카시키 아쿰에 머물고 있을 때에도 모니카는 어거스틴의 곁에 있었다.

32) *Conf.*, 9. 7. 15. 385년 초에 유스티나가 암브로스 감독에게 밀라노에 있는 교회를 아리안파에게 넘기라고 명령했다. 암브로스 감독은 이 명령에 불복하였고 386년 부활 절기에 그 저항은 절정에 달했다.

33) *Conf.*, 6. 2. 2.

34) *Conf.*, 8. pp. 12-30.

“당신의 사랑 안에서 아직 초신자요 예비신자였던 나는 그 때 예비신자였던 알리피우스와 우리를 언제나 떠나지 않았던 어머니와 함께 그 별장에서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자의 옷은 입었으나 남자의 강한 신앙을 가지고 계셨고 자신의 연령에 맞는 마음의 평화와 자식에 대한 사랑, 그리고 기독교인의 경건을 몸에 함께 지니고 계셨습니다.”³⁵⁾

카시키아쿰의 토론 현장의 모니카는 적극적이고 현명한 참가자였다.

“어머니 마음의 힘은 나를 집으로 인도했고, 나는 그것이 진정한 철학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나는 어머니가 시간만 있으면 우리의 토론에 참여하시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다.”³⁶⁾

388년 부활주일(4월 24-25일), 아들 ‘아데오다투스’(Adeodatus)와 친구 알리피우스와 함께 암브로스 감독에게 세례를 받은 어거스틴은 일행과 함께 아프리카로 되돌아간다. 이 여정 중 어거스틴과 모니카는 ‘오스티아’(Ostia)의 항구도시의 작은 주택의 창문가에서 황홀경(恍惚境)을 함께 체험한다.

우리의 대화가 육체의 감각적 쾌락이 아무리 휘황찬란한 것이라 할지라도 영생의 기쁨에는 결코 비할 바가 못 된다고 말하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마음은 진리 곧 항상 같은 분을 향하여 열정으로 타올라 우리 자신이 들려졌습니다. 한 발 한 발 우리는 온갖 물상 즉 해와 달과 별이 지상에 빛을 발하는 하늘 그 자체를 두루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적 묵상의 경지에까지 이르는데 여기에서는 당신의 성업들을 찬양하고 경탄하다가, 우

35) *Conf.*, 9, 4, 8.

36) *Vita.*, 2, 1, 1.

리 마음의 가장 영적인 부분에 이르러 그들을 초월하여 마침내 영원히 마르지 않은 풍요의 원천에 이르렀습니다.³⁷⁾

오스티아 비전의 현장에서 어거스틴의 회심의 모습을 직시한 모니카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다”고 감격했다.

어머니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누릴 즐거움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서 나의 바라던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왜 더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잠깐이라도 더 오래 남아 있기를 원했던 단 한가지 이유는 죽기 전에 내가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이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바라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보답해 주셔서 내가 세상의 행복을 끊고 그의 종이 된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더 이상 무엇이 있겠느냐?”³⁸⁾

모니카는 이 오스티아의 비전을 체험한 후 닳새가 지나 열병으로 병상

37) *Conf.*, 9, 10, 23-26. ‘헨리’(P. Henry)에 의하면, 오스티아의 비전은 “플로티니안 사상의 성서적 형식화”이다. *La vision d’Ostie: Sa place dans la vie et l’oeuvre de saint Augustin* (Paris: Vrin, 1938), 49-52; ‘쿠르셀’(Pierre Courcelle)에 따르면, 오스티아의 비전이 성경적 형태로 옮겨졌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플로티누스 철학적이었다. *Recherches sur les Confessions de Saint Augustin*, 159-167. J. Kevin Coyle, “In Praise of Monica: A Note on the Ostia Experience of Confessions IX”, *Augustinian Studies* 13 (1982), p. 88에서 재인용; 이에 반해 ‘스탄스’(Colin Starnes)의 비판에 의하면, 헨리의 관점은 어거스틴의 사상에서 플로티누스 철학이 어떻게 관계되고 구별되는지 정확하게 보여 주지 않았다. 고로 스타스에 따르면, 《고백록》 제 9권의 오스티아 비전은 어거스틴이 그의 세례 후에 기독교적 삶의 성격을 보여 준다. Colin Starnes, “Augustine’s Conversion and the Ninth Book of the Confessions”, Joanne McWilliam, ed., *Augustine: From Rhetor To Theologian* (Waterloo: Wilfrid Laurier Univ. Press, 1992), p. 58.

38) *Conf.*, 9, 11, 27.

에 높게 된 지 아흐레째 되던 날 하늘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³⁹⁾ 당시 모니카는 56세였고, 어거스틴은 33세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모니카에 대한 《고백록》의 두 측면은 어거스틴의 삶에 있어 모니카의 위치와 역할의 중대성을 분명히 인지케 한다. 특히 아버지의 강력한 불신앙이 어거스틴에게 경건한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경건함을 막지 못했다고 《고백록》에 명기할 정도로 모니카의 영향력은 막강했다.⁴⁰⁾ 이렇듯 모니카를 축으로 한 《고백록》의 기록 편향은 근대 심리 해석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⁴¹⁾

39) *Conf.*, 9, 11, 28. ‘베라디노’(Angelio Di Berardino)의 조사에 의하면, 타가스테의 남편 무덤 옆에 모니카의 무덤 자리가 예비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이태리에 묻히기를 요청했다. 408년 집정관 ‘바수스’(Anicius Auchenius Bassus)가 모니카 무덤에 묘비명을 새겼는데 그 일부분이 1945년에 오스티아 안티카(Antica)에 있는 성 오레아(Aurea) 교회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Angelio Di Berardino, “Monnica”, *Augustine through the Ages: An Encyclopedia* (Michigan: Wm. B. Eerdmans Pub. Co., 1999), p. 570.

40) *Conf.*, 1, 11, 17.

41) 어거스틴에 대한 심리 분석적 조사를 통한 심포지엄은 1965년과 1985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1965년의 심포지엄 때는 주로 정신병 의사들(psychiatrists)들과 심리학자들(psychologist)이 참석하였고, 1985년의 심포지엄 때는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종교 심리학자들의 일원으로서 참가하였다. 이 두 차례에 걸친 심포지엄은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5 (1965): 130–152; 6 (1966): 273–289; 25 (1986): 56–115에 수록되어 있다. 이하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은 *JSSR*로 표기한다.

심리학적 논의 가운데 눈에 띄는 몇 가지 주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데이비드 베이컨’(David Bakan)에 따르면, 어거스틴은 명백한 외디푸스적 요소를 가졌다. 어거스틴에게서 발견되는 외디푸스적 경향은 《고백록》이 모니카에 대해서는 호의와 호감을 강하게 표시하지만 그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에 대해서는 비난 섞인 언급을 하였다는 측면에서 인지된다. 베이컨에 의하면, 어거스틴의 이 의도적인 기술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잠재의식의 성적 관계를 나타낸다. 이런 점에서 베이컨은 어거스틴을 가장 무익한 사람들 중 하나이며 자기 비난적이고 그리고 비성숙한 개인이라고 평가한다. David Bakan, “Some Thoughts on Reading Augustine’s Confessions”, *JSSR* 5 (1965), pp. 148–152.

‘폴 프뤼저’(Paul W. Pruyser)에 의하면, 어거스틴은 공격적이고, 논쟁적이며 경쟁적인 측면이 강화된 자로서 자기 자신의 지적 능력을 사랑하는 부풀려진 자기 이미지를 가진 자이다. Paul W. Pruyser, “Psychological Examination”, *JSSR* 5 (1965), p. 284.

‘울코트’(Philip Woolcott)에 의하면, 어거스틴의 인격에는 나르시즘적인 것과 외디푸스적 투쟁이 얹혀 있다. 특히 어거스틴의 인격 속에 뒤범벅이 된 나르시즘적 요소와 외디푸스적 경향은 그의 삶의 후반기에 자기 존중과 자기 응집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어거스틴의 경우 훗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강요와 복종하는 것에 대한 강요 사이의 갈등에 처하게 된다. Philip Woolcott, “Some Considerations of Creativity and Religious Experience in St. Augustine of Hippo”, *JSSR* 6 (1966): pp. 273–283.

어쨌든 어거스틴은 그의 모친의 신앙과 경건에서 큰 감동과 위로와 영향을 받았다. 이런 점에서 《고백록》을 통해 반향되는 모니카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아들의 반향으로 심한 타격을 받으면서도 모든 것을 사랑으로 흡수해 버리는 어머니이다. ‘맥페이그’(Sallie McFague)는 이 모자(母子)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한다. “어거스틴은 모니카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구체화하며 그의 어머니를 이상화시킨다.”⁴²⁾

2. 모니카의 사랑과 어거스틴의 신학적 성숙

앞서 어거스틴에 대한 모니카의 사랑의 자취를 조사했다. 그렇다면 모니카의 사랑이 어거스틴의 신학적 성숙에 끼친 영향은 무엇일까?

‘디테스’(James E. Dittes)의 분석에 의하면, 어거스틴의 초기 삶은 모니카에 의해서 좌우되어졌다. 따라서 어거스틴의 유년기 인격에는 이미 사물에 대한 편견이 자리한다. 특히 어거스틴의 유년 시절에 마마보이로서 움츠렸고 계속적인 나르시즘에 의해서 그의 의식은 혼돈 상태에 직면해 있었다. 디테스에 의하면, 이러한 견지에서 어거스틴은 커다란 적개심과 공포에 초연함을 가진 인격의 소유자였다. James E. Dittes, “Continuities Between the Life and Thought of Augustine”, *JSSR* 25 (1986), pp. 130–139.

‘유진 테셀’(Eugene TeSelle)에 조사에 따르면, 《고백록》은 어거스틴의 자기 시험이 들어 있는 자서전이다. 고로 《고백록》은 어거스틴의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어거스틴 자신의 경험을 구축하고 해석하는 인식을 기초로 하여 시간을 통해 응집성을 향유한 채 성장하고 있는 투쟁적인 자기에 대한 새로운 견지를 열어 보인 책이다. 이런 점에서 《고백록》에 반영되어 있는 어거스틴의 인격은 “신성한 빛과 사랑에 자유롭게 응답하는 천사와 같이,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 진로해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부여받은 자로서, 결과적으로 창조의 순간부터 있어 온, 그래서 많은 충실한 영혼들이 순례하는 하나님의 도성 곧 진실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구축된 사람”이다. Eugene TeSelle, “Augustine as Client and as Theorist”, *JSSR* 25 (1986), p. 92.

42) 맥페이그에 의하면, 모니카를 의존하는 어거스틴의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의 여성 신학자들이 논하는 어머니로서의 하나님(God as Mother) 개념처럼, 하나님과 어머니 안의 신앙을 주장하는 배경이 된다. Sallie McFague, “God as Mother”, Judith Plaskow and Carol P. Christ, *Wearing the Visions: New Patterns in Feminist Spirituality*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89), pp. 139–150.

1) 회심

‘오커넬’ (Robert J. O’Connell)의 평가에 의하면, 《고백록》에 녹아 있는 어거스틴과 모니카의 긴밀한 관계성은 어거스틴의 회심에 영향을 미쳤다. 곧 타락한 영혼의 소유자였던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사랑이 투영된 모니카의 ‘돌봄’을 통해 하나님과 낙원을 향해 돌아서도록 인도되었다. 이 돌봄은 포베레(fovere)라는 개념(문자적으로 따뜻함, 애무, 소중함)과 연관된 하나님의 돌봄이다. 다시 말해 《고백록》에 때때로 부성(父性)적인 것이 언급된다 하더라도, 어거스틴에게 있어 이 신적(神的) 포베레(fovere)는 좀 더 모성적이다. 이는 ‘어미 새’ (the mother bird)나 간호원의 돌봄과 같다. 따라서 하나님의 돌봄은 어거스틴을 결국 회심시켰다.⁴³⁾ 오커넬에 의하면, 어거스틴에 있어 회심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에게로, 어머니 교회에게로, 그의 어머니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서는 것을 뜻한다.

2) 어머니로서의 교회

모니카의 사랑은 어거스틴의 ‘보편 교회’ 사상 정립에 영향을 주었다. 테일러(David B. Taylor)에 따르면, 어거스틴은 교회를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부르기보다는 주로 보편 교회라고 칭했다. 때로 어거스틴이 ‘로마 교회’를 언급할 때는 ‘로마시에 있는 교회’를 뜻했다. 그는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보편 교회를 의미하는 ‘가톨릭 교회’ (catholic church)라고 표현했다.⁴⁴⁾

43) Robert J. O’Connell, *St. Augustine’s Confessions: The Odyssey of Soul*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9), p. 36.

어거스틴에 의하면, 카톨릭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 따라’를 뜻하는 카타(κατα)와 ‘전체’를 뜻하는 홀로스(ὅλος)의 결합이다. 따라서 가톨릭은 보편 교회 곧 모든 곳에 있는 교회라는 뜻이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가톨릭이란 단어 자체는 사제나 의식에 관한 의미를 조금도 갖고 있지 않고 단지 보편성을 뜻할 뿐이다.⁴⁵⁾

어거스틴의 보편 교회 개념은 ‘어머니로서의 교회’ (church as mother) 개념에서 특화된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그가 자기 모친의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였다는 신앙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 그가 그 모친으로부터 하나님과 영생에 대한 교훈을 들은 바에 힘입었다. 더욱이 어거스틴은 그의 어린 시절 갑작스러운 심한 복통으로 죽을 뻔했을 때 모성애의 어려움을 실감하였고, 이로써 “나의 어머니의 경건과 세례 받은 자가 모이는 우리의 모든 어머니의 교회”라고 토로했다.⁴⁶⁾

제이(Eric G. Jay)에 의하면, 어거스틴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개념은 터툴리안과 키프리안이 이용하였던 교회에 대한 은유를 이용한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며 그녀의 자녀들을 위해 안락한 가정을 마련하는 어머니로서의 교회에 대한 은유이다.⁴⁷⁾ 어거스틴은 《요한복음 강해(In Joannis Evangelium, tractatus CXXIV)》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인 교회의 품이 산고를 당하는 이유가 있다. 선한 사람들과 악한

44) 테일러에 따르면, 어거스틴은 종종 기독교란 단어를 대신해서 ‘가톨릭 신앙’(서신 15: 1), ‘가톨릭 진리 체계’(서신 11: 3), ‘거룩한 교회, 유일한 교회, 참교회, 가톨릭 교회’ 신조에 관하여 14)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이 가톨릭 교회는 자기 가족의 교회, “어렸을 때부터 내 부모님이 심어 주신 신앙”(《고백록》 5, 14, 24)이었고, 따라서 그런 한도 안에서 방황하던 청년 시절에도 자신이 ‘이미 가톨릭 신자’였다고 말할 수 있었다. David B. Taylor,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본 신앙》, 김원주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p. 129.

45) *Ibid.*

46) *Conf.*, 1, 11, 17.

47) Eric G. Jay, 《교회론의 역사》, 주재용 역(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p. 110.

사람들이 있어, 두 무리가 어머니인 한 태중에서 다투고 있는 것이다.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산고를 당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하다.⁴⁸⁾

어거스틴은 교회가 세례를 통해 생명을 탄생시킨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탄생시키는 것이 바로 보편 교회라고 주장했다.⁴⁹⁾ 그러기에 만일 “교회의 본질을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폐기된다면, 그것은 “탄생의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어거스틴은 강조했다.⁵⁰⁾

제이에 따르면, 어머니로서의 교회 개념, 곧 낳고 양육하고 돌보고 나아가 말을 안 듣는 아들뿐 아니라 모범적인 아들에 대해서도 변민하는 어머니로서의 교회 개념은 계속해서 교회의 이목을 끌어들였다. 그런데 이 개념의 적합성은 각 교회의 목사들과 신자들을 통해 실제로 이러한 자기회생적 돌봄을 신뢰할 수 있다. 어거스틴이 그 점에 대한 탁월한 본보기이다.⁵¹⁾

48) Augustine, *In Joannis Evangelium, tractatus CXXIV*, III, 10, Philip Schaff, ed.,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Vol. VII (Buffalo: The Christian Literature Company, 1986). 이하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는 NPNF로 표기.

49) Augustine, *De Baptismo, contra Donatista*, III, 10, in NPNF., Vol. IV. 일례로 어거스틴은 “교회의 경계 안에 있건……혹은 그것을 벗어나 있건 간에 그 모두를 탄생시키는 것이 보편(가톨릭) 교회다”고 말했다. *Ibid.*, I, 15(23).

50) *Ibid.*, I, 10.; 어거스틴에 따르면, 어머니인 교회가 낳은 자녀들 중 많은 자가 죄인들로 판명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회개는 언제나 가능하고 화해도 언제나 주어졌다’고 어거스틴은 확신했다. 따라서 그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제 2의 세례는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오직 죄인은 신실한 훈련과 참다운 고백에 의해 깨끗해진다. 그것이 그의 어머니인 교회로 돌아오는 길이다. *Ibid.*, I, 17.

51) Eric G. Jay, *op. cit.*, p. 111.

3) 사랑의 영성

모니카의 사랑은 ‘사랑의 영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어거스틴의 영성⁵²⁾ 세계에 영향을 끼쳤다. 헤이즐튼(Roger Hazelton)에 따르면, 어거스틴에게 그리스도인이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여행 중인 사람’ (*homo viator*)인 순례자이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됨은 지위가 아니고 운동이며 지점이 아니고 과정이다. 동시에 영혼과 하나님 사이의 고정된 만남이 아니라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그 본질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불타는 열망에 자극받고 형언할 수 없는 약속에 매혹되어 쉽 없이 하나님을 향한 정해진 길을 간다.

《고백록》을 통해 짐작컨대, 어거스틴은 평생에 걸쳐 사랑을 추구하는 ‘애욕의 인간’ (*homo amans*)으로 살았다. 곧 어거스틴은 일생 동안 애욕의 인간으로 살아왔고 그가 추구한 사랑은 그 대상에 따라 질(質)이 달랐다. 회심 전 어거스틴은 수사학 교사로서의 명예를 사랑하며 정욕을 탐닉했다.⁵³⁾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심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했다.⁵⁴⁾ 이런 차원에서 헤이즐튼에 따르면, 《고백록》에서 만나는 어거스틴은 무질서한 애정인 *cupiditas*의 추구에서 하나님 안에서 갖는 정돈된 사랑인 *caritas*로의 영성을 지닌 순례자이다.⁵⁵⁾

52) 홀트(Bradley P. Holt)에 따르면, 기독교에서의 영성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전제를 가진다. 하나는 우리의 비육체적 자아가 느끼는 갈증인데, 그 갈증은 순수한 생명수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이가 적극적으로 찾는 사랑이다. 이 점에서 기독교 영성은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되 개인의 생활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관계와 통합하면서 기도를 통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상호작용하는 특성이다. Bradley P. Holt, 《기독교 영성사》, 엄성욱 역(서울: 은성, 1994), pp. 12–15.

53) *Conf.*, 3, 1, 1.

54) *Conf.*, 8, 12, 30.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선언한 어거스틴은 외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본성과 내면적 상태에 있어서 경건한 금욕주의적 삶을 추구해 나간다.

55) Roger Hazelton, “경건의 삶”, 《아우구스티누스 연구 핸드북》, 현재규 역(서울: 크리스찬다이스트, 1994), p. 470.

특히 클라크(Mary T. Clark)에 의하면, 어거스틴에게 있어 영성은 ‘아바 아버지’(롬 8:15)라 부를 수 있는 사랑(*caritas*)을 중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시는 ‘성령 안에 있는 삶’(life in the Holy Spirit)으로 규정된다.⁵⁶⁾ 사랑과 삶이 어우러진 어거스틴 영성의 특성에 대한 클라크의 통찰은 어거스틴 영성의 근원이 그의 인생 여정 안에 깊이 자리한 모니카의 사랑 안에서 배태된 것임을 암시한다.

실제 어거스틴은 ‘*Pondus meum amor meus*’(나의 사랑은 나의 무게이다)⁵⁷⁾라는 《고백록》의 명제로써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례 여정에 점철된 사랑의 영성을 표명한다.

“나의 사랑이란 나의 무게입니다(*Pondus meum amor meus*). 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지 간에 나는 사랑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당신의 선물인 성령으로 인하여 불붙어 위로 오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그 불에 타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당신의 길을 오르면서 즐거운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마음이 당신의 불, 그 좋은 불에 타며 앞으로 나아감은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안’(시 122:6)을 향해서 위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주님의 집으로 가자’고 말을 할 때 나는 기뻐합니다. 당신의 좋으신 뜻은 우리를 거

에 거하게 할 것이며 우리는 당신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더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시 23:6).”

순례자로서의 어거스틴의 영성은 지적 상승에 의해서도 아니고 금욕주의적 의식의 실천에 의해서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는 성령에 의해 사랑(*caritas*)에게로 통합된다.⁵⁸⁾ 어거스틴은 397년에 집필한 《그리스도교 교양(*De doctrina christina*)》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무릇 교회는 그분의 몸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전하는 바와 같이 또한 그의 배필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분은 각기 다른 기능을 하는 여러 지체들로 되어 있는 당신의 몸을 건강의 끈이라 할 일치와 사랑의 끈으로 묶으신다.”⁵⁹⁾

결과적으로 모니카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어거스틴은 *caritas* 안에서 하나님을 신실히 사랑하는 영성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한다.

56) Mary T. Clark, “Spirituality”, *Augustine through the Ages*, Allen D. Fitzgerald, Ed.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 Co., Grand Rapids, 1999) p. 814. 클라크에 의하면, 어거스틴의 영성에는 개별적이고 사회적이며 제도적인 양상이 있다.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것은 기독교적 비전인데, 그 근거는 인간 개개인은 그의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믿음 안에 있다. 이 진실은 한 번 깨달아 알아지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기도로 친근한 교통을 하게 된다. 그리고 모두를 위한 관심을 가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전적 예배(liturgical worship)에 참여하게 한다. 각각의 인간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는 창조의 역사와 아들의(예수의) 성육신을 통해 드러났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유효해졌다. 이것이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점점 더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게 하여 그의 삶에 회심을 불러 일으켰다.

57) *Conf.*, 13. 9. 10.

58) 니그렌(Anders Nygren)의 분석에 의하면, 어거스틴에게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중요했다. 어거스틴은 사람이 추구하는 사랑의 방향성 측면에서 사랑을 *caritas*와 *cupiditas*로 나눈다. *caritas*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상승하는 상향적 사랑이다. 반면 *cupiditas*는 피조물인 이 세상을 향하는 하향적 사랑으로서 일시적인 세상에 대한 사랑이다. Anders Nygren, *Agape and Eros*, 고구경 역(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 p. 516. 니그렌에 따르면, 어거스틴은 사랑에 대한 플라톤적 개념을 신학의 장으로 끌고 들어와 신학에 계시된 독특한 아가페의 성격을 완화시켰다. 곧 어거스틴은 인간을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에 자아 중심적 사랑인 에로스적 요소를 혼합시켰다. 니그렌은 이를 ‘카리타스 종합’(caritas synthesis)이라고 불렀다. *Ibid.*, p. 523.

59) Augustine, *De doctrina christina*, 1.16.15, 《그리스도교 교양》, 성명 역(왜관: 문도출판사, 1989).

나오는 말

어거스틴은 《고백록》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에 대해 찬양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넉넉히 거하도록 사랑을 쏟아 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고백록》과 기타 저작을 통해 리얼하게 기술했다. 특히 어거스틴은 그의 필생의 역작인 《고백록》에서 어머니 모니카를 통해 그의 가슴에 담겨진 사랑의 빛을 숨기지 않았다. 이는 그가 어머니의 눈물 어린 사랑의 헌신과 기도에 힘입어 ‘어머니로서의 교회’ (church as mother)와 영원한 어머니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서는 회심을 하였기 때문이다.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했다.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사랑하되, 어머니로서의 본유적 사랑과 용감한 믿음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데 헌신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을 통해 모니카의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화시킨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남겨진 사랑을 그의 신학 세계 속에 계속 반향시킨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모니카는 여성다움의 신중함과 지성과 신앙을 두루 갖춘 기독교 여성상의 전형으로서 어거스틴의 통전적 회심과 깊은 영성이 어우러지는 놀라운 신학 지평을 여는 데 감동적인 밑거름이 되었다.